

시온 주보

제2424호 2022년 12월 4일(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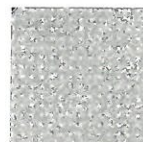
대림 제2주일(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간)

발행 [출판]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송 | 이사 30,19,30 참조

보라, 시온 백성아. 주님이 민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주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리라.

제1독서 | 이사 11,1-10

화답송 | 시편 72(71),1-2,7-8,12-13,17(◎ 7ㄴㄷ 참조)

◎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시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

의 목숨을 살려 주시나이다. ◎

○ 그의 이름 영원히 이어지며, 그의 이름 해처럼 솟아오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그를 칭송하게 하소서. ◎

제2독서 | 로마 15,4-9

복음환호송 | 루카 3,4,6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음 | 마태 3,1-12

영성체송 | 바룩 5,5; 4,36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황경원 안드레아 신부 | 사회사목국 국장

세상의 고통과 사회교리

케이 컬처(K-culture) 유행, 경제 규모 세계 10위(191개국 중) 달성,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돌파 등 우리나라의 좋은 일이 세계적으로 알려질 때 우리는 기쁩니다. 그러나 이런 자랑을 뒤로하면 먹고사는(집 걱정, 노후 걱정, 일자리 걱정, 돌봄 걱정 등) 일상의 고단함으로 허탈해지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겪는 고통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교회의 사회교리는 이정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41회 인권 주일이며 제12회 사회교리 주간(12월 4일~10일) 첫날입니다. 사회교리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공동선을 증진할 수 있도록 사회의 다양한 영역(인권, 노동, 경제, 정치, 국제 공동체, 환경, 평화 등)의 현실을 관찰하고, 복음에서 제시하는 기준으로 성찰하며, 성찰한 바를 구체적인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신앙인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 29-37)처럼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필요한 일을 찾아 연대하여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간추린 사회교리〕 182항 참조: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

기업가·고용주라면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마태 20, 1-16)처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알고, 소수의 이익만을 우선하지 않아야 합니다.〔간추린 사회교리〕 277-280항 참조: '노동은 자본보다 본질적으로 우위'

남보다 더 많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직분에 있다면 더욱 더 '황금률'('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라.'(마태 7, 12) 이것이 '황금률'이다. | 「가톨릭교회 교리서」 1789항(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회교리를 가르친다)대로 대우받고 싶은 만큼 남을 귀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간추린 사회교리〕 144항 참조: '모든 인간의 동등한 인간의 존엄성'

착한 사마리아인, 포도밭 주인, 황금률 등 인권과 공동선을 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한 정치 공동체의 역할은 중요 합니다. 교회는 정치 공동체의 임무가 "시민들이 인간의 권리를 참되게 행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들을 온전하게 이행할 수 있는 인간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노력함으로써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간추린 사회교리〕 389항 참조)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들을 실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죄의 구조를 공동선의 구조로 바꿔가야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초대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 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마태 3, 3)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 전당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로마 15, 7)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안아줄 때 그 품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빛을 발합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은 다른 모든 이에게도 소중합니다. 같이 사랑합니다.

유별남 레오폴도 | 가톨릭사진가회



아침 기도

저는 지금부터 45년 전인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하던 시기였기에 가슴은 뜨거웠고, 모든 걸 주님과 성모님께 기도하며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뜨겁던 가슴은 식었고, 신앙은 더 자라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성당을 다니며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무늬만 신자’ 생활을 하다 냉담자가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혹은 길을 걸어가다가 성당이 보이면 중고등학교 시절 장계를 하고 뜨겁게 기도하던 시절이 떠오르곤 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생각에 다시 고개를 돌려 가던 길을 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냉담을 푼 건, 15년 전 성당 부근으로 이사를 하면서였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성당이었지만 마음은 푸근했고, 고해소에 들어설 때도 죄책감보다는 다시 돌아와서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냉담을 하다 다시 돌아왔다는 생각에 때론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교리 재교육도 받고 레지오 마리아 활동을 하면서 다시 신앙을 담금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역사와 사회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의 삶을 복원하는 전기 작가이기 때문에 역사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당에 다시 나가면서부터는 조선 시대 천주교 역사에 관심을 가지면서 신앙 선조들의 교우촌 생활에 관한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선 후기 박해 시대 때 깊은 산중의 교우촌에서는 신부님을 거의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전심을 다 하는 기도 생활로 신앙을 지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할 때는 먼저 십자성호를 그은 후



이충렬 실베스테르 | 전기작가

“천주님, 내 얼굴을 깨끗하게 하시니, 내 영혼도 이같이 깨끗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고, 옷을 입을 때도 “천주님, 내 육신을 이같이 호위하고 보존하여 주시니, 내 영혼도 이같이 호위 보전하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녁 기도 때는 시작 기도인 ‘성신강림송(지금의 성령강림송)’을 하면서 “임하소서 성신(성령)이여.”를 여러 번 반복했다니,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부터 아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저녁 기도까지는 못 하기에 어제 하루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가락질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보면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리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아침 기도를 시작한 후부터는 저도 모르게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저에게 아침 기도는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 하느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기에, 새해부터는 저녁 기도도 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한컷 묵상



류상애 아녜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41

회개 =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신자가 많지 않던 시절, 사제가 신자들 신앙생활의 공과 과를 판단하기 위해 교리, 신앙, 고해성사 등을 점검하는 것이 '판공(判功)성사'였는데, 오늘날엔 부활 대축일과 성탄 대축일을 앞두고 모든 신자가 고해성사를 하도록 마련한 시기를 판공성사라 합니다. 교회법상 모든 신자는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이상 고해성사와 성체를 영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간혹 신자들이 모인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죄를 고백하지 않고 간단한 참회 예식 후 모든 이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일괄사죄'가 있는데, 이는 전쟁 등 급박한 경우만 가능하고, 코로나19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도 함부로 활용될 수 없으며, 반드시 주교 승인 후 가능합니다.

고해(告解)성사란 세례 이후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성사입니다. 회개의 성사, 화해의 성사라 합니다. 이전에 '고백성사'라 했는데, 죄 고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었고, 지금은 참회와 화해의 의미를 강조하기에 고해성사라 합니다.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이유는 성경에 근거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22-23) 예수님은 당신의 죄 용서 권한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사도들에게 위임된 권한은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과 그의 협력자인 사제들에게 계승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죄를 지으면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게 됩니다. 죄 용서는 하느님이 하시는 것이고, 사제는 하느

님과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죄 용서를 강조하신 이유는 죄가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인간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란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느님 뜻을 거역하고 저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죄는 하느님을 외면하고, 하느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반대말은 '회개'입니다. 회개(悔改)란 마음을 하느님께 향하는 것,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에 빠졌을 때 인간은 하느님을 등지고, 멀어지게 되기에 은총을 주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죄를 씻고, 회개해야 합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고해성사를 통해 죄는 용서되지만, 죄의 결과로 생겨난 벌인 '잠벌'은 남게 되고, 이 벌은 합당한 대가를 치르거나 기워 갚아야 합니다. 잠벌은 보속(補贖)을 통해 사면될 수 있는데, 현세에서 보속을 다하지 못하면 연옥에서 해야 한다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벌을 기워 갚지 못해 남은 경우, 이 벌을 감면해 주는 것이 '대사'(大赦)입니다. 대사는 전대사(全大赦)와 한대사(限大赦)로 나누는데, 전대사란 죄인이 받을 벌을 전부 없애 주는 것이고, 한대사란 그 벌의 일부를 없애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성인들의 통공', 즉 천국 교회와 지상 교회와 연옥 교회에 속한 이들은 친교를 나눌 수 있고,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해 잠벌을 감해 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성 데레사 진료소

우리에게는 항상 나눌 무언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냐 성 데레사(St. Therese)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 데레사 수녀입니다. 제가 속한 케냐 가르멜수녀회에서는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이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소가 위치한 아프리카 케냐 키텐젤라 지역은 부족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집을 떠난 가난한 사람들이 케냐 내에서도 특히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매우 건조한 지역이라 매일 날아드는 흙먼지 바람으로 지역 내 대부분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던 지난 3년간 가뜩이나 가난한 지역인 이곳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의 케냐는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뭄은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마실 물도 구하기 힘들고 음식은 더 구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서 병원을 찾아오는 이들을 치료하다 보면 대부분 끼니를 챙기지 못해, 약을 처방해주어도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와 본당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굶주린 이들을 위해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받으러 오는 대다수 사람들이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진료소에서는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료로 진료를 합니다.



지난사연
후원 후기

매주 약 3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진료하고,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제가 경험한 기적은, '우리에게는 나누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직원들은 가난한 이들과 환자들을 위해서 놀라울 정도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여정에 하느님께서는 늘 함께하시며, 결국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데레사 수녀님, 세 사람이 더 있어요.”

어느 토요일, 무료 진료를 마치려던 때 들려온 한 수녀님의 이 말이 마치 하느님께서 제 마음에 속삭이시는 것처럼 다가온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느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보내시며, 나에게 그들을 돌볼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이후 저는 '하느님이 지치실 때까지 저를 쓰시기를 기도'하며 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무료 진료를 진행하다 보니 진료소 운영과 의약품 구입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희 진료소에서 계속해서 가난한 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정 데레사 수녀 | 케냐 가르멜 수녀회

*모아주신 후원금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해 전액 '케냐 성 데레사 (St. Therese) 진료소'에 지원해 가난한 이들의 진료를 위한 처방 구입 및 의약품 지원 등의 활동을 위해 사용합니다.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180-003488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22년 12월 3일~12월 30일 15시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케냐 성 데레사 진료소'를 위해 씁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http://obos.or.kr>)-한마음한몸소식-본부소식'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① 인터넷 신청: www.obos.or.kr > 후원안내 > 사랑의 손길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② 전화 신청: 02)774-3488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영화 '역으로 가는 길을 알려줘' 믿고 싶구나!



이대현 요나 | 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여덟 살 소녀
사야카(닛츠 치세
분)가 후세(오이다
요시 분)에게 이렇

게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나요? 누군가도, 무언가도 좋아요.” “뭘 기다리나요?” “할아버지는 기적을 믿나요?” “하느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녀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후세 할아버지 역시 누군가를, 무언가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지.” “무언가는 뭘까?” “믿고 싶구나.”라는 할아버지의 대답은 소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재일 동포 출신의 나오키상 수상 작가인 이주인 시즈카의 단편소설이 원작인 <역으로 가는 길을 알려줘>는 죽음과 상실, 이별과 기억, 위로와 공감의 영화입니다. 사야카는 얼마 전 반려견 루를, 작은 재즈 카페를 운영하는 이웃의 후세 할아버지는 40년 전에 어린 아들 고이치로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도, 할아버지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았어.” “멀리 가서 돌아오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야카는 여전히 루가 옆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걷고 뛸니다. 건널목에서 루가 가장 좋아했던 붉은 색의 전철이 지나가기를 눈을 지그시 감고 기다리고, 둘만의 비밀 장소인 바닷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공터의 풀밭을 뒹굴니다. 세상의 모든 반려견이 그렇듯 사야카에게 루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야카는 파양 당해 버려진 루에게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루와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고, 혼자서 바라보거나 느끼던 것들을 함께

했습니다. 영화는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올 만큼 그 순간들을 양증맞고, 순수하고, 당돌하고, 사랑스럽고, 눈과 가슴 시리도록 따뜻하게 담았습니다.

그런 시간을 겨우 1년만 보내고 떠난 루. 찾아야 합니다. 그 ‘기적’을 위해 사야카는 후세 할아버지에게 “어딘가로 가요. 기다리지만 말고 우리가 먼저 찾으려 가요.”라고 제안합니다. 후세 할아버지가 임시로 돌봐주는 또 다른 유기견 루스와 함께 바닷가로 간 그들은 아들과 루를 만납니다. 상상이면 어떻고, 꿈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시 만났고, 영생을 보았습니다.

<역으로 가는 길을 알려줘>에서 역은 하늘나라로 가는 전철을 타는 곳입니다. 병이 깊어 죽음을 앞둔 후세 할아버지는 그 역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고, 아들과 루와 함께 그 전철을 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사야카는 그 역이 어디인지, 그 전철이 어디로 가는지, 왜 함께 타기로 약속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공터의 낡은 철로로 열차가 들어오고 후세 할아버지와 고이치로, 루가 떠납니다. 사야카도 “제발 나도 데려가 줘.”라고 소리치며 달려가지만 탈 수 없습니다. 아주 긴 세월이 흘러야만 탈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기차가 도착하는 곳에서 루도 다시 만나겠지요.

그때까지 루는 사야카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소중한 존재이니까. 어쩌면 루스가 루의 다른 모습일지 모릅니다. 소중한 존재와의 작별과 그 의미, 기적과 하느님의 존재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사야카가 “루 고 마워.”라고 하면서 루스와 함께 힘차게 산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보면.

‘시간의 화살’을 통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김도현 바오로 신부 | 예수회, 대구 동촌본당

현재까지 물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우주는 138억 년 전 무한히 뜨겁고 무한히 밀집된 특이점에서 빅뱅을 통해 생겨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빅뱅의 시점은 우주의 탄생 시점인 동시에 ‘시간의 시작’ 시점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물리학적으로 이해하기로는, 빅뱅 이전에는 공간이나 시간이 없었으며 시간상으로 빅뱅 이전의 때로 거슬러 갈 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듯이, 시간의 가장 신비로운 점은 그것이 반드시 특정한 방향을 향하여 흐른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반드시 과거에서 현재, 미래를 향해 흐릅니다. 이러한 ‘시간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방향성’을 일컬어 물리학자들은 특별히 ‘시간의 화살’(the arrow of time)이라고 부릅니다. 이렇듯이 시간은 공간이나 질량, 에너지 등 물리학에서 다루는 나머지 물리학적 대상들과는 달리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만, 즉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를 향하는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물리학 법칙들은 법칙 체계 안에서 시간의 방향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까지 알려진 물리학 법칙들은 법칙 내의 시간을 역전시켜도 법칙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학 내에서도 ‘시간의 화살’의 존재는 대단히 특이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 왔죠.

그러다가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입자물리학 실험의 발전에 따라 ‘시간의 화살’이 조금씩 학계에서 주목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1964년에 있었던 기념비적인 실험은 간접적으로나마 ‘시간의 화살’을 실험적으로 확인한 최초의 결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난 2012년도에 스탠퍼드 선형 가속기 센터의 실험을 통해, 드디어 ‘시간의 화살’이 물리학적으로 옳은 것으로 완전히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화살’은 우리의 삶, 더 나아가 신앙의 문제에 근본적인 과제를 안겨줍니다. ‘시간의 화살’은 필연적으로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곤 합니다. 신앙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삶의 과정에서 요청된 결과입니다. 만일 우리가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을 가질 필요도, 기도를 드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시간의 화살’을 전제로 할 때 그 의미를 가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의 화살’은 빅뱅이 우리 인간에게 안겨준 것으로서 신앙이 존재하게 된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빅뱅을 일으킨 그분은 ‘시간의 화살’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12월 4일)은 제41회 '인권 주일'이며 '사회 교리 주간(12월 4일~10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생명수호 주일' 이동 및 '생명 주일'과 통합 시행

우리 교구에서 2008년부터 매년 12월 첫째 주일에 시행해왔던 '생명수호 주일'을 2022년에는 지내지 않고 2023년부터 매년 5월 첫째 주일, 주교회의가 정한 '생명주일'에 통합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사임, 후임 교구장에 옥현진 주교 임명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의 교회법에 따른 사임 청원을 받아들여주시고, 광주대교구 보좌주교이자 페데로디아나(Pederodiana) 명의 주교인 옥현진 시몬 주교를 신임 광주대교구장으로 임명하셨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사목평의회 위원 임명

위원장: 정순택 대주교

부위원장: 손희송 주교

위원: 유경춘 주교, 구요비 주교, 정영진 신부, 조성풍 신부, 김종욱 신부, 김민수 신부, 윤일선 신부, 권혁준 신부, 김명순 수녀, 박미라 수녀, 손예진 수녀, 홍현자 수녀, 김선동 루카, 김용직 베드로, 김정재 가브리엘, 서정호 미카엘, 석남연 실비아, 이병욱 요한금구, 정미림 마틸다, 최유진 스텔라, 최은영 사비나, 최현만 올리아노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2년 12월 8일 박정렬 바오로 신부(51세)
- 1968년 12월 8일 임종구 바오로 신부(58세)
- 1972년 12월 10일 김유룡 필립보 신부(80세)
- 2001년 12월 7일 이운기 스테파노 신부(44세)
- 2002년 12월 8일 김정남 안드레아 신부(46세)

서울주보 게재 신청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교구청알림

제45차 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

때, 곳: 12월15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성당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명동 직장인 금요미사

때: 매주(금) 12시15분
곳: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26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2023년 3월3일~11일(8박9일)
주관: 성서못자리 / 지도: 이주형 신부
문의: 010-6734-0190 심 소화대제사

가톨릭 시니어 후원회 12월 월례미사

성가와 함께하는 찬양 미사
때, 곳: 12월6일(화) 14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미사 주례: 노인사목팀 담당 사제
문의: 02)727-2385, 6 사목국 노인사목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녘 분당 갖기] 미사

때, 곳: 1347차 미사 12월6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분당: 함흥교구 흥남 분당, 함흥 분당
미사 후에 한반도 평화와 북녘분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2022 하쿠나 인 코리아

문의: 02)777-8249 청소년국 대학교사목부

콘서트	12월7일(수) 19시30분, 서소문성지 역사 박물관 콘솔레이션홀
대축일 미사	12월8일(목) 19시30분 절두산 순교성지
성시간	12월9일(금) 20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서울대교구 사목상담 화상 수업: 내가 모르는 나를 만나다

때, 곳: 12월12일~2023년 3월13일 매주(월) 20시~21시
교육 지도: 문종원 신부 / 문의: 010-6224-2920 강명인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 월례미사

때: 12월5일(월) 오전 10시30분~11시30분
곳: 가톨릭회관 3층 / 문의: 02)921-5094

서울대교구 '온라인 혼인교리'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접수 /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2022년 정기 세미나(사회홍보위원회)

주제: 혼인은 선물?! / 문의: 02)460-7623
때, 곳: 12월5일(월) 14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참조

생명위원회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1) 12월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12월5일(월) 11시, 명동대성당 내 파밀리아채플
2)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 상처 치유 프로그램 및 미사)
매월 두번째 화요일에 진행되는 희망으로 가는 길은 12월에 쉽니다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7시) /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12월 구역반장 월례연수

주제: 사목교서 해설 /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에서 동영상 강의로 제공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정연규 선물전: 1전시실
허옥의 '시·서·화 일기': 2전시실
박영순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12월7일(수)~12월(월)

가톨릭 영유아(만 5세 미만) 부모교육

주제: 우리 아이와 함께 성경 읽기
강사: 박종수 신부(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지도신부)
때, 곳: 12월10일(토) 오전 10시~12시30분, 영성센터(구 계성여고) & 온라인 비대면 교육(ZOOM)-양방향
동시 진행 / 11월28일(월) 10시~12월6일(화) 16시까지 유아부 홈페이지(www.catholicinfant.or.kr) 접수
문의: 02)727-2115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전국 성지순례 접수와 순교자현양회 정기연주회

1) 하루일정 전국 성지순례 접수 안내
때: 12월17일(토), 12월18일(일), 12월27일(화)
곳: 갈곡리, 신암리성당, 김포성당, 파주속곡와 화해의성당
신청: 12월5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회비: 1인 4만5천원(차량, 중식 제공)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2) 순교자현양회 합창단 제15회 정기연주회
김대건성인 기념사업회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
때, 곳: 12월8일(목) 19시30분,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콘솔레이션홀(전철 2호선 충정로역 4번 출구) 제1부(노엘 미사곡), 2부(성가, 오페라, 영화음악 등)

모임

18양천지구 성령 피정

때, 곳: 12월12일(월) 13시~16시30분, 양천성당
강의-미사: 김도영 신부 / 문의: 010-9074-6527

베네딕도 성탄 전례 피정

때, 곳: 12월24일(토)~25일(일), 대구 베네딕도 영성관(주최)
회비: 7만5천원 / 문의: 053)313-3425, 010-7103-3425

낙태 후 화해 피정(착한목자수녀회)

때, 곳: 2023년 1월6일(금)~8일(일), 명상의 집(우이동)
회비 없음 / 문의: 010-6637-1366 고 마르타 수녀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자랑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12월1일~31일 / 문의: 010-4198-7970

순교성지 새남터 대림 피정

주제: 순교자들의 후손은 살아있다
강사: 김경희 수녀 / 문의: 070-8672-0327 성지안내소
때: 12월5일(월) 13시30분~17시(성지 미사)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대피정

담당: 김중국 신부 / 강사: 이창진 신부
때: 12월6일(화) 12시30분~17시
곳: 가톨릭회관 7층 / 문의: 010-5514-4077 회장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세~40세 청년 신자
때, 곳: 12월11일(일) 14시~17시, 평신도선교사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 문의: 010-3817-0567

2023년 살레시오 겨울 성소 피정

때, 곳: 2023년 1월6일(금)~8일(일), 살레시오회 관구관(서울) / 대상: 고3(예정자)~30대 미혼 남성
회비: 3만원 / 문의: 010-2042-8353 심재현 신부

해맞이 피정(왜관 피정의 집)

때, 곳: 12월30일(금) 16시30분~2023년 1월1일(일) 13시30분, 왜관 피정의 집 / 계좌: 농협 301-0087-0776-61 베네딕도수도원(접수 후 입금)
회비: 25만원 /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65차 이스라엘·이탈리아 순례(작은형제회)

때: 2023년 4월24일~5월5일(11박12일)
곳: 이스라엘, 이탈리아 로마·아시시
문의: 010-9704-9495(www.terrasanta.kr)
주최: 작은형제회 이스라엘 성지 한국대표부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12월16일~19일·2023년 1월6일~9일·1월 27일~30일,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토마스 머튼 영성배우기 피정(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내용: 박재찬 신부의 머튼영성 강의(총24회)
때, 곳: 2023년 매월 첫번째(토) 10시~16시, 서울 분원(주최) 피정집(강릉동) / 문의: 010-8719-8608 (문자)
블로그: https://blog.naver.com/thomasmerton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해설강의, 묵상, 미사
지도: 정 바오로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성가기도: 고영민(찬양선교사) / 성경직해 피정비: 1만원
때, 곳: 12월10일(토) 14시~18시, 구산성지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에서 갖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순례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분장
때: 12월16일~18일·12월31일~2023년 1월2일(한라산 눈꽃 산행)·1월7일~9일·1월13일~15일·1월28일~30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제주 자연 피정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청년 쉼모임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1)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Zoom 화상모임)
때, 곳: 12월8일~2023년 1월12일 매주(목) 19시30분~21시, Zoom 화상모임 / 회비: 2만원
2) 평화의 모후 청년 쉼모임
때: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6호 / 대상: 미혼

삼성산 피정의 집 성령기도회 및 치유 대피정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화요 성령기도회 / 매주(화) 18시30분~22시
치유 대피정 / 12월10일(토) 12시30분~17시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10차 / 12월30일(금)~2023년 1월7일(토) /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111차 / 1월20일(금)~28일(토)
제112차 / 2월10일(금)~18일(토)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12월9일~11일
연말연시 피정	12월30일~2023년 1월2일(눈꽃산행)
눈꽃산행	1월5일~7일, 1월27일~29일, 2월4일~6일

음악치유 피정 및 음악심리상담사자격증 교육

곳: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음악치유 피정반	2023년 1월20일~2월3일 매주(금) 13시30분~16시30분
음악심리상담사 자격증반	2023년 1월18일~2월1일 매주(수) 13시30분~16시30분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예수마음선교수녀회)

곳: 예수마음 피정의 집(문산)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2023년 2월25일(토)~26일(일), 3월4일(토)~5일(일)
3박4일	12월15일(목)~18일(일), 1월6일(금)~9일(월)
8박9일	12월26일(월)~1월3일(화), 1월25일(수)~2월2일(목)·신학생
40일	12월10일(토)~1월18일(수)

교육

미사 반주 오르간 교육

(14동작자구오르간교육)
곳: 흑석동성당 / 문의: 010-8606-2168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새천년복음화학교 147기·95기 수료특강

내용: 특강, 미사 / 문의: 02)753-8765
때, 곳: 12월11일(일) 13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7층
'다함께 성가를' 발성교실 / 문의: 010-9842-8818
가톨릭평화방송TV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마나음악원(주최, 신촌)

인천가톨릭대 부설 교리신학원 2023년 21기 신입생 모집

대상: 견진성사 받은 만 19세~69세 신자 30명
2023년 1월말까지 전화 예약 후 대면 접수(수시 모집)
문의: 032)830-7137 / 홈페이지: ds.iccu.ac.kr

한국외방선교회 성서인문학 강좌·후원회 미사

대상: 성서인문학 강좌에 관심 있는 분
때, 곳: 12월7일(수) 15시~16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강사: 김병수 신부(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14시, 소성당 / 문의: 02)3673-2528

돈보스코미디어스쿨 신입생 모집

과정: 고등과정(17세~24세) / 문의: 02)833-0930
검정고시반, 독서, 사회, 영어, 체육, 미디어, 제과제빵, 미술, 사진 / 남자기숙사 운영
곳: 돈보스코 미디어스쿨(양천구 신림3동)
홈페이지: http://db-mediaschool.kr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

때: 2023년 1월부터 1년간 / 회비: 3개월 30만원
문의: 010-4598-6912 프란치스코회

대면	히브리어 (수) 10시~12시
Zoom	히브리어·히랍어 (수) 19시30분~21시30분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접수: 2023년 1월17일(화)까지 / ci.catholic.ac.kr
15명 미만 지원학과 개강 안 됨 / 문의: 02)747-8501

교리교육 학과	주 5일 주간(2년)	세세 3년 넘는 견진자 입회 2년 넘는 수도자
종교교육 학과	주 3일 야간(2년)	타 대학에 적지 않고
신학심화 과정	주 3일 주간(1년)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본원 교리·종교학과 준한 과정 이수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2023년 1월 개강)

각6주 과정 /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신약성경과 영성생활-치유에 대한 오해와 성서학적 진실	현장 강의 (월) 14시~16시 동영상 녹화강의 링크 발송	임숙희 박사
구약성경 아카데미 신명기 강독-무엇을 믿고 어떻게 사는가	현장 강의 (화) 19시30분~21시 / 동영상 녹화 강의 링크 발송	주원준 박사
의식(양심) 성찰, 어떻게 할 것인가?	매주(화) 동영상 링크 발송	권요면 신부

수제 묵주 수강생 모집(가톨릭묵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모집

개포동성당 첼름 오케스트라 현악기 전공자 모집

접수: cafe.daum.net/caelumorch / 010-2239-9463

미사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12월7일(수)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2)776-0457

군중신부 특강 및 군 복무중인 청년과 회원을 위한 미사

때, 곳: 12월5일(월) 14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와 성모신심미사

때: 둘째주(토) 12월10일 10시~13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2)727-2489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열림미사

나눔: 양운정 수녀(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때, 곳: 12월17일(토) 16시, 골롬반 선교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 문의: 02)953-0613

북방선교회 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10-6219-1575

대상: 북방선교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 회비 없음

집전: 김윤상 신부(해외선교봉사국 차장)

때, 곳: 12월7일(수) 14시, 가톨릭회관 205-2호

인사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최영민 신부(예수회) / 문의(예약): 010-3173-2665

포메스심리상담소

인간적, 영적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가족, 부부,

심리불안(주회) /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양폴2022-yangpaul2022로 선교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 양폴2022, yangpaul2022

제작: 성바오로수도회(주최) 양은철 신부

문의: 010-9333-6260 양은철 신부

가리파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가족이 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알코올 중독 회복을 위한 주·야간재활 교육 및

의존자 가족교육과 자녀모임 상시 운영

때: 주·야간 운영시간(월~금) 9시~17시, (화~목) 19시~21시

제주도 관광

제주운전기사사도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

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scen.or.kr

전문 심리상담	정서불안, 우울, 분노, 의사소통의 어려움 (부부·가족·개인)
사목상담	성격, 관계, 정서(불안·우울·단절감) 등 심리적 고통에 관한 상담 / 대상: 개인, 가족, 부부, 청소년 누구나(무료 10회기)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 문의: 010-9146-7654

상담: 불안, 우울, 공황장애, 부부,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골롬반회, 심리학박사)

떼제노래와 함께하는 기도모임

대상: 청소년, 청년과 그 가족 / 문의: 02)744-0840

때: 매월 세번째(토) 12월17일 오후 4시

곳: 햇살사목센터(주최, 혜화로2길20)

직원모집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CA 직원 모집

분야: 연구직원(육아휴직 대체자) 1명

업무: 인성교육 교재연구, 강의 / 대상: 견진 성

사 받은 대졸자로 주일학교 교사 경력자 우대

근무: 2023년 1월1일~12월31일 / 자세한 내용은 학교

사목부 홈페이지(www.kyca.or.kr/ca)에서 확인 바랍니다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직자 추천서, 교적 사본

11월26일(토)~12월19일(월) 17시까지 이메일 접수

서류합격자 발표: 12월20일(화) / 면접: 12월22일(목)

문의: 02)553-7320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생명위원회 직원 모집

분야: 일반 사무행정 계약직 1명(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본

당 주임신부님 추천서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개별 연락)

12월18일까지 이메일(vitavia_recruit@naver.com) 접수

광복성당 직원 모집 / 문의: 02)2689-1998

분야: 사무장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심신

이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있는 분(견진받은 신자)

서류: 이력서(사진), 교적 사본, 본당 주임 추천서,

자격증 사본, 자기소개서 / 채용시까지 방문·등기

우편(우 14213, 경기도 광명시 연서일로43 광복성당) 접수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직원 모집

분야: 교구 언론홍보 담당 사무원 1명(계약직, 정

규 직 전환 가능) / 이메일 문의

대상: 세례받은 분으로 초대졸 이상, 관련 전공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

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 11월28일(월)~12월12일(월)

18시까지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구파발성당 방호원(관리인) 계약직 모집

업무: 시설관리, 방호, 미화 등(시설 관련 면허소

지자 우대) / 대상: 세례받은 성실하고 건강한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합격자 개별 연락)

12월20일(화)까지 방문·우편(우 03306, 서울시 은평

구 진관로 29-16 구파발성당) 및 이메일(hshs1015@

nate.com) 접수 / 문의(접수): 02)389-1501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성복구 종로구)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분야: 주방근무자 0명(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

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

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 12월11일

(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서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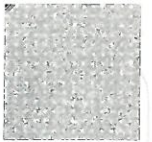
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사회복지사	주 40시간
남녀 요양보호사	주 40시간 3교대, 기숙사 가능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마리아의 종 수녀회	12월11일(일)	분원(돈암동)	010-6826-6882
미리내 성 요셉 애덕 수녀회	12월17일(토) 14시	경리단길	010-5639-8071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12월11일(일) 9시	분원(장충동)	010-8353-2323 (문자 문의)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수시	상의 후 결정	010-5155-5505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12월17일(토) 15시	수도원(성북동)	010-6608-3217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양승국 신부의
흥미진진 성경 읽기

양승국 지음
생활성서사 | 216쪽 | 1만4천원
문의: 02)945-5987

복음서의 예수님 이야기를 양승국 신부 특유의 재치와 예화로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어 우리를 복음적 삶으로 이끌어 주는 책이다. 복음서의 예수님은 우리와 '아재 개그'를 하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친근하게 다가서길 원하시는 메시아시라는 것을 다양한 예화와 경험으로 설명해 준다.



신간

비유에 깃든
하느님 얼굴

제라르 로세 지음
바오로딸 | 256쪽 | 1만5천원
문의: 02)944-0944

이 책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비유로 가르치기를 선호하셨던 예수님의 교육적 재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분이 들려주신 비유들의 원래 형태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다.



신간

쉽표
영원으로 열리는 순간

김두현 SJ지음
성서와함께 | 152쪽 | 1만7천원
문의: 02)822-0125

이 책은 저자의 많은 사진 중에서도 대한민국, 미국, 싱가포르, 스페인, 저자가 특히 좋아하는 캄보디아에서 찍은 일상의 사진을 담았다. 그 사진들을 통해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함께하시는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김두현 신부의 사진첩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영화

탄생

개봉일: 11월 30일(수) / 문의: 02)371-6927
상영관: 전국 CGV(1544-1122), 롯데시네마(1544-8855), 메가박스(1544-0070)
예매: 각 상영관 모바일 및 PC 홈페이지 참조
30명 이상 단체 관람 시 할인 - 1인당 1만원
(단, 기준가격이 1만원 이하인 조조·경로·우대 등은 할인 안 됨)

한국의 첫 사제 성 김대건 신부님의 일대기를 다룬 최초의 극영화 <탄생>이 개봉한다. 조선 근대의 길을 열어젖힌 개척자 청년 김대건의 위대한 여정을 그린 대서사 에드벤처. 바다와 육지를 넘나들었던 모험가이자 글로벌 리더, 역사를 바꾸는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굴의 도전정신을 불태웠던 선구자 김대건 신부님의 신학생활 유학 시절과 사제의 탄생과 순교의 순간을 감동적으로 그린다.

cpbc 가톨릭평화방송 평화신문

cpbc TV 프로그램 안내

가톨릭평화방송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공사다夢

방송시간 | (주일) 10시, 19시, (월) 10시 20분,
(화) 1시, (토) 7시 10분
첫 방송 | 11월 27일 (주일) 10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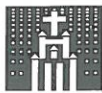
다시 하나 되는 가톨릭 공동체를 위해 신부님, 수사님들이 뭉쳤습니다. 지역 가톨릭 공동체의 리더인 신부님들과 수사님들이 풋살화의 신발 끈을 동여매고 그라운드를 누립니다. 다양한 교구와 수도회에 소속된 총 124명의 신부님들과 수사님들이 총 12개 팀을 이

루어 함께 하는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사제 풋살대회 <공사다夢>!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총 4개의 예선 리그에서 열띤 경쟁을 통해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대장정. 그 안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땀 흘리고 꿈을 향하는 사제들의 이야기, 공차는 사제들의 다양한 꿈, <공사다夢>과 함께 가톨릭 공동체의 화합을 느껴보세요.



제2257(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진주교연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이범자(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창년 20, 창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24명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축복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세례식 : 12월 18일 (주일) 11시 미사

◎ 성탄 집중 판공성사

일시 : 12월 15일(목) 저녁 7시 30분

장소 : 성전 및 임시 고해실

◎ 12월 4일(주일) 오후 2시에 주일학교 통합미사가 있습니다.

◎ 연령회 미사

일시 : 12월 6일(화) 오전 10시

매월 첫째 화요일 10시에 연령회(선종하신분들을 위한 미사)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 돌아가신 연령을 위해 연도를 바칩니다.

◎ 반디가 만드는 주님의 잔치 (특별미사)

반디주일학교 학생들이 모든 전례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새롭지만 편안한 특별미사를 선물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12월 18일(주일) 오후 2시 / 대성전

※ 12월 17일(토) 15시 초등부미사는 없습니다.

◎ 성소후원회 미사 : 12월 20일(화) 오전 10시

※ 성소후원회 회원분들 회비는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성탄 케이크 신청

아버지들이 힘을 모아 주일학교 아이들

성탄 케이크를 선물하고자 합니다.

신청 : 12월 4일(주일) 오늘까지 / 해당 자모회장

※ 가정당 1개, 추가 15,000원

선물은 12월 25일 오후 2시 주일학교

성탄미사 때 드립니다.

◎ 연성회(70대) 송년모임

일시 : 12월 8일(목) 오후 5시 30분 / 201호

2부에는 식사가 있습니다.

*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송경원 베드로 회장 (010-5228-4707)

김무영 요셉 총무 (010-3891-4300)

◎ 여성구반장 회합

일시 : 12월 11일(주일) 12시 / 소성전

◎ 군입대 자녀 성탄선물은 12월 11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 평일미사 반주자 모집

봉사시간 : 평일 06시, 10시 미사

문의 : 아네스 대표 (010-4538-5665)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11. 27)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117	875 (41.3%)	836 (39.5%)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책정한 세대는 12월분까지 납부해주시고,
 미책정 세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교무금을 책정하신후
 2022년도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헌금 (11월 21일~27일)

오혜심	일십만원	송명진	일십만원
익 명	삼십육만원	진영문	일십만원
진현주	오만원	진현수	오만원
미라클합창단	일십만원	박범주	오만원
최일곤	일십만원	이성애	삼십만원
김은순	오만원	성지호	오만원
성주혜	일십만원	성승명	오만원
한지현	이백만원	익 명	일십만원
김재균	오만원	이영주	오만원
정재현	일십만원	천일백원	

◎ 우리들의 정성(대림 제1주일)

교무금.....13,948,000원

주일헌금.....5,758,400원

입당	93	봉헌	211, 217, 342	성체	154, 176, 168	파견	92
----	----	----	---------------	----	---------------	----	----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